

CEO 동경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사업 업무협약식



김광재 이사장은 12월 18일 오산시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토론회 개최

- 임금 및 대금채불 근절, 불공정 관행 철폐, 비리 근절 추진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12월 1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639개 협력업체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및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건설 근로자 임금 및 대금채불, 원·하도급사 불공정관행, 철도산업 비리 등을 철도산업 전반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강력 자정 결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협력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우수사례 시상식과 철도건설 현장 639개 협력업체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정거래 협약체결도 동시에 개최됐다.

정상화 추진 토론회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임금 및 대금채불 방지대책,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불공정 거래 개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공단의 자구노력에 대한 협력업체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철도건설 현장의 원도급사 동반성장 추진 최우수 사례로 경부고속철도 10-2 공구 (주)대우건설의 '동반성장 커뮤니케이션'을 선정 하였으며, (주)한양, GS건설(주), 대림산업(주), 삼성물산(주) 등 10개사를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시상했다.

시설 최적화로 66억원 예산절감


- 현장 여건에 맞춰 안전설비 최적화 및 효율성 제고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및 예산절감 정책과 공단 6대 경영방침의 하나인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를 위해 철도안전설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본부는 최근 스페인, 미국, 대구역 열차탈선사고 등으로 철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호남·수도권고속철도에 설치되는 터널 경보장치, 지진감시설비 등 안전설비를 재검토하여 약 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철도안전설비는 선로 감시설비, 시설 상태 감시설비, 인명 및 방법 목적설비로 구분되며 경부고속철도를 계기로 국내에 도입된 이래 일반철도까지 설치를 확충하고 있다.

본부는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은 강화하고 시설은 최적화하여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는 철도사업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 방만경영 요소 제거 등 경영합리화 이행 선도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12월 17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방만경영 요소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했다.

경영지원실은 2013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파견 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 금지하여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 하였고,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액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 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하여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 및 방만경영 등의 요인을 개선했다.

또 사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협 내 유사조항들을 통합하여 종전 143개 조항을 119개 조항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2013년도 임금상승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향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였고, 중고성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선 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월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다.

경영지원실은 앞으로는 방만경영 요소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26일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철도건축 설계기준 정립과 VE 활성화로 414억원 절감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건축 및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설계VE를 활성화하여 건축분야에서만 3년간 41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본부는 건축 및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침 일체를 국제적 기준 체계에 맞춰 CODE화하는 등 철도건축 설계기준체계를 정립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역사 과잉시설과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총 43건의 철도건축 설계기준을 제·개정했다.

※건축분야 기준 제·개정 현황

| 구분 | 주요실적 |
|-------------|---|
| 철도설계기준 | 건축편 · 최초 제정('11.12) : 8장, 167항목 연계교통시설편 · 최초 제정('12.12) : 5장, 16항목 |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 건축편 · KR CODE화 전면개정('12.12) : 8장, 161항목 연계교통시설편 · 최초 제정('13.11) : 6장, 26항목 |

이러한 철도설계기준체제 정립을 바탕으로 설계VE 및 심사 활동을 강화한 결과, 2011년 58억원의 사업비절감을 시작으로 2012년 114억원, 2013년 현재 242억원 등 건축분야에서만 총 414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다.

본부는 앞으로도 저비용·고품질, 이용자 중심의 설계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VE를 더욱 활발히하여 예산절감과 성능향상을 동시에 이루어 부채 해소와 이용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상부에 최초로 공공도서관 건립

- 수원~인천 복선전철 고색역사 내 건립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위치한 지하 고색역사 상부에 철도최초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고색역사 상부에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은 지하층, 지상3층, 연면적 약 4000㎡의 규모로, 수원시에서 도서관 건립비용(약 92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2월 19일 공단과 수원시간 협약을 체결했다.

고색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수원시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선진 독서문화 환경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과 수원시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철도역사 상 최초로 시행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본부 관계자는 2016년 12월 수인선 고색역 개통과 함께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고색역 도서관이 완공되면 철도를 통한 도서관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 저가하도급 방지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기대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전기분야 하도급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자체 제정하여 운영하던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을 저가하도급, 임금채불 및 건설기계대여금 채불 방지 등 중소기업육성 및 협업강화를 위해 개정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가하도급 방지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실시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 항목에 임금채불 이력과 건설기계대여금 채불이력에 대한 감정을 추가했다.

그간 관련법(전기공사사업법)은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및 적정성 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반영하여 건전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선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전기 공사사업 일부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공사 본격 추진

- 2018년 말 완공 시 140만톤(년) 신항만 물동량 운송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포항영일만신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철도수송을 위해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공사'를 12월 12일 착공 했다.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 신포항역에서 영일만신항까지 9.2km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3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40만 톤의 신항만 수출입 물동량을 철도를 통해 대량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송효율 향상, 물류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단에서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신경주~포항),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및 중앙선(도담~영천~신경주) 건설사업 등과 연계하여 포항시와 인근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